

이재표, 수원 총학생회장 당선

56% 투표율, 54% 득표해 근소한 차이로

총학생회장에게 오미연양

수원캠퍼스 제23대 총학생회장으로 이재표(중문·4) 부 고재건(기계·2)군, 제2대 총학생회장으로 오미연(사회대 행정·3), 부 박순정(불문·2)양이 각각 당선됐다. 지난 15일 개표된 총학생회선거는 총유권자 6천8백17명 중 56%인 3천8백28명이 투표했으며, 기

통해 "이번 선거의 열기를 모아 자주적 학생회를 건설하여 앞으로의 민족민주운동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총학생회 선거는 총유권자 1천9백9명 중 9백28명이 투표해 61.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그중 56.5%인 5백44표를 얻은 기호2번 오미연, 박순정씨가 2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지난 12월에 있었던 체육과학대학의 선거는 기호2번 전기특(대문3)후보가 총투표자수 464표 중 273표를 획득하여 차기 체과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해설】 이번 23대 총학생회선거는 학생회비 분납부정행위가 있는 수원 캠퍼스 등 4곳에서 실시되었다.

는 사실이 주목할만하다. 이는 정부의 학생회 와해정책으로 인한 결과로서 평가된다. 또한 예년에 비해 투표자수의 감소로 선거준비주최의 준비미흡, 기존 학생회사업의 대중과의 공무미흡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 단대선거 종료직전 사태, 체대등 이변주 실시

서울캠퍼스 문리대, 법대 등 각 단대 선거가 거의 끝나감에 따라 당선자의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단대별 당선자 및 선거결과를 다음과 같다.

▲문리대: 기호1번 정 박종근

교심위 강의 평가제 실시

수원 교수채용문제 등 협상 난항

양캠퍼스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는 오늘부터 23일까지 교양과목에 대한 강의평가제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1학기때 실시한 강의평가 결과를 올바르게 평가해 내기 위하여 1학기 과목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무기명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심위는 ▲90학년도 전공개관평가 ▲교수자의 강의방식 ▲교재(주교재·부교재)에 대한 만족도 ▲강의에 대한 평가(중간·기말시험, 리포트 등)의 만족도 ▲학생들의 수강장도 등 13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국문·3), 부 이은정(물리·3), 유권자 1천6백71명 중 1천1백69명(67%)투표, 6백56표(70.1%)득표
▲법대: 정 천준호(법학8) 부 김병철(행정8) 유권자 4백74명 중 3백17명 투표 2백59명(55%)찬성
▲정경대: 기호1번 정 조우호(무역·3) 부 정재철(신상3) 총유권자 2천3백54명 중 1천3백77명(58%)투표, 7백34표(53%)득표
▲사법대: 후보 기호1번 김현정(영교·3) 기호2·박기동(영교·3) 유세:16일, 오후1시 투표:21일 10시~6시
▲가정대: 이정선 총유권자수 6백13명 중 3백33명(56%)투표, 3백20명(96%)찬성
▲의대: 기호2번 정 이상훈 부 박종혁, 총 6백63표 중 3백24표(48%) 획득
▲치대: 단독후보 이덕수 총유권자수 4백68명 중 3백14명(67.1%)투표 2백84명(90.4%)찬성
▲음대: 기호2번 이현호(기악과)가 4백37명 투표자 중 2백37표(54%)득표
▲제대: 기호1 조민영(체육·2) 기호2 한성주(체육·2) 16일까지 후보자등록 27일 유세후, 선거할 예정



전농 '추수대동제' 원천봉쇄 규탄 전국 곳곳서 상경투쟁등 행사강행

전국농민총연맹(이하 전농)은 경찰이 약 1천2백여명을 투입, 원천봉쇄하고 농민들의 상경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0 전국농민 '추수대동제'를 강행·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있었던 전국64개 군단위 농민대회에서 농민들이 벌인 불태우는 등 대규모 시위를 벌인데다 전농 등 참가단체가 시원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행사자체를 원천봉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6면>

이에 전농은 지난16일 기자회견에서 규탄성명서를 통해 '추수대동제'가 공연과 장터로 구성되는 문화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민과 도시민이 농산물 직판과 대동놀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려는 대동제마

저 막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밝히고 16일부터 3일간의 행사를 강행했다.

지난 15일부터 행사를 참가하려던 농민들이 경찰의 저지와 회유에 맞서 즉각 항의시위를 벌이며 상경투쟁을 벌임으로써 농민들의 단결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전북 부안군 농민회원 10여명은 16일 오후2시에 쌀·고추·김 등 특산물을 1트럭 2대에 싣고 부안농민회 사무실을 출발하려 했으나 경찰이 저지, 이과징에서 공문서와 허윤화씨가 분신을 기도했으며 동료농민이 막

을 특산물을 싣고오라는 방청에 따른 것으로 도중에서 경찰에 의해 농민이 연행·부상당하기도 했다. 또, 청원 원천봉쇄농민회의 특산물을 싣은 차와 함께 본교에 들어오려던 권종대 전농 의장, 양민규 충남연맹 의장 등 3명은 회기파출소 앞에서 연행돼 청량리경찰서로 이송, 조사중이다. 한편, 전농은 지난16일 오후4시 30분부터 노천극장에서 열릴 '곳'을 갖고, 다음날인 17일부터 전국세물대회를 약식으로 치르는 행사를 축소했다. 대문장에서는 포천군·고창군농민회 등 10여개 농민회가 장터를 열어 농산물 및 음식물을 판매했다.

서울, 복지회관 건립추진위 구성

부지확보, 설계도 작성등 추진될 것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공약사업추진위원회'는 복지회관 건립 문제와 도서관 마그네틱카드, 공기청정기 설치문제와 학교측과의 면담에서 합의에 따라 후속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부총장실에서 있었던 3차면담에서 양측은 '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부지확보와 설계도 작성 등을 일임키로 했으며, 도서관 마그네틱카드설치는 재정과 공사규모를 고려해 도서관 전산화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서관 공기청정기는 현재 7대가 설치돼 있으나 학생측 요구대로 개개열람실 2대를 포함, 거의 모든 열람실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회관은 학교, 학생들 모두 구성원의 참여에 규모 및

용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적립된 재정은 건설가계정 1억원, 총학생회 모금액 3천5백만원, 복지운영위원회 3천5백만원, 동문회 1억원정도를 합해 총 2억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문리대 전산실' 개장

'문리대 전산실'이 지난13일 공대 7층에 문을 열었다. 전산실은 올해 21대의 퍼스널 컴퓨터가 도입 개장되고 있으나 예산의 미비로 인해 오후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문리대 학생회는 내년까지 40대를 갖추기 위해 학교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방학때는 컴퓨터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경대 유세장에서 느낀 '카타르시스'

▼해마다 이때쯤이면 학교가 선거열기로 북적거리기 마련이다. 각과학생회를 비롯해 단대학생회, 총학생회에 이르기까지 열띤 선거전이 펼쳐지기에 이른다.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나뉘는 선전문구들, 분주하게 인사를 나누는 후보자들, 자신의 주장과 이상을 유권자들에게 온갖 힘을 다해 설명하려는 선거유세장의 열띤 경쟁, 이러한 분주함을 촉하는 혼란과 소란으로 치부할지도 모르겠으나 교심위에서는 이것이 바로 대학의 활력이고, 살아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선거때면 어김없이 귀에 거슬리는 '불협화음'이 찾아온다. 선거유세장에서 유세를 진행하는 교수들과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들간의 의견충돌과 짜증스러운 불만

들이 바로 그것이다. 아마도 선거를 관심있게 지켜본 학생들이나 공교롭게도 유세시간에 맞춰 강의를 진행해 본 교수는 누구나 한번쯤 이러한 불협화음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수업에 방해가 된다해서 선거유세를 야간에 진행할수도 없는 것이고 '소곤 소곤' 작은 목소리로 유세한다거나 강의실을 옮기고 강의시간을 변경한다는 것도 참으로 곤란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욱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수들은 교수대로 짜증만 벌이고 있는 일이다.

▼지난 14일 오후5시부터 4시까지 정경대 앞마당에서 정경대학생회장 선거

유세가 있었다. 이날 선거유세를 진행하는 한 학생이 유세시간에 정경대 강 의실에서 수업이 있는 모든 교수들에게 유세가 있음을 알리며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너무하게 양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휴강을 해주시던 교감님께서도 '라고 강의가 있던 모든 교수님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날은 정경대유세장에서는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들의 따분한 눈치로, 유세장마다 찾아오던 불협화음도 들리지 않은채, 아주 자연스럽게 유세가 진행됐다.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괜한 교심을 했었구나 싶다. 이날 유세를 지켜보며 교심위가 소실속에서 인물의 갈등구조가 해소될때나 느끼는 자그마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이 될까.

대학주보 정기구독 신청 요령

졸업후에도 '대학주보'의 정기구독을 원하는 사람은 직접 본사에 오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FAX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주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국
- ◇신청전화: (02)961-0094 (02)963-5849
- ◇FAX: (02)963-5849
- ◇정기구독료: 1만원(1년 25회 276면 각회 1부기준)
- ◇구독료 납부방법 아래 은행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 한국주택은행 492325-90-18400
- 제일은행 150-20-231438
- 조흥은행 321-04-233401
- 중소기업은행 017-02-0154-084
- 국민은행 010-01-0559-741
- 채신부(우체국) 012336-0004517
- 농협중앙회 031-01-294693
- 한국외환은행 131-13-06374-7
- 한일은행 014-045527-02-001
- 서울신협은행 16707-2654505
- 한국상업은행 151-07-293464 (이상 예금주 이석우)

◇기타: 정기구독 신청서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시고 가능한한 본사에 마련되어 있는 대학주보 정기구독 신청서를 작성, 접수시켜 주십시오

“
모교의 생생한 목소리와
함께 하십시오
”

4년간장든 모교를 떠나야 하는 4학년 졸업예비생들의 마음이 왜그런지 허전해질때입니다 푸른 꿈을 안고 동용문을 들어서던 그 시절부터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던 기억, 함께 지내던 과후배들과 정들었던 동아리활동, 그 모든것이 새롭게 느껴질 때입니다 졸업후에도 정든 모교의 생생한 현장과 대학인의 목소리를 '대학주보'와 함께 느껴보십시오

대학주보사